

먹거리와 바꾸는 北문화재

불상·도자기등 대량 해외유출...국내 반입 가짜 많아

정부 회수대책 절실

최근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의 문화재들이 일본이나 홍콩 등 해외로 대량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회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로 반입되는 북한문화재 대부분이 가짜로 판명돼 무분별한 구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중춘)는 "북한에서 유출되는 불상·도자기 등 문화재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데도 외환관리법상 상인들이 1만달러 이상을 갖고 외국으로 나갈 수 없어 중요문화재들이 일본이나 홍콩상인 손에 넘어가도 속수무책"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협회측은 "이들 문화재의 국내반입이 용이토록 정부가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수작업에 나설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골동품을 밀거래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간여해 국보급 문화재까지 빼돌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95년에는 노동신문 북경특파원이 불상 2점을 중국으로 밀반입, 판매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북한 현지에서 거래되는 문화재의 가격은 순금불상 1천5백달러, 금동불상 1천달러 정도로 가격이 비싼 편. 이처럼 고가로 판매됨에 따라 북한 내의 문화재 도굴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유적지 훼손까지 덩달아 심각하다. 현재 중국의 심양, 단둥 등지에 있는 국내의 골동품업자 2~3백여 명이 머물면서 문화재 구입에 열중하고 있으나 지닐 수 있는 돈의 한정된 액수로 인해 일본이나 홍콩의 상인들과 합夥하기가 벅찬 상태.

또 북한내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외화별이사업소에서 모조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전문적 밀매거래가나 북한내 화교, 방북해외동포 등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하고 있다. 김포공항 문화재감정소에는 보통 한달에 3~4건씩 북한문화재 감정뢰가 들어오고 있고, 고미술협회도 북한에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의 감정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모조품이거나 중국산으로 판명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내로 유입돼 가짜

로 판명된 금동미륵반가상은 그 좋은 예다.

김포공항의 문화재감정관 김형우씨는 "여행객들이 애국심 차원에서 북한문화재로 오인해 사오는 것을 삼가고, 대신 전문적인 감식안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하에 이를 구입하는 등 북한 유출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석 기자>



인덕노인복지관 개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노인복지회관(이사장·성운스님)이 29일 개관했다. 민간시설로는 최초의 전용복지회관인 인덕원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최신식 건립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갖췄다. 이날 법어를 내린 성운스님 수덕사 주지법장, 제원, 지용, 지원, 명성, 진관, 명우스님 등과 권익현, 이재오, 손세일 국회의원, 서찬교 은평구구청장, 현대불교 김관삼시장 등 5백여 대중은 인덕원 개원에 큰 박수를 보냈다.

전법도량 지정·법사단 구성

조계종 '전법의해 추진위' 을 하반기사업 확정

조계종 전법의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월주 총무원장)는 3일 전법도량 지정(9월중), 10~12월 전법도량 순회 법회봉행 등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법도량은 당초 2곳에서 시범 사찰 5곳, 거점사찰 2곳을 지정

할 예정이다. 7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한달간 실사와 심사를 거쳐 9월중 확정한다. 전법도량은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전법도량이 지정되면 원로스님과 총무원장, 총무원 부장급스님, 교구본사주지 등으로 50인 내외의 법사단을 구성, 10~12월 두달 동안 전법도량을 순회하는 대규모 법회봉행을 계획하고 있다.

또 '사회변동과 불교의 과제' '새롭게 요구되는 불교의 모습'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향후 전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 뉴스

조계종 '깨사 기획단' 구성

조계종 깨달음의사회와 운동본부는 6월 25일 서울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깨사 연구기획단'을 구성했다. 기도 연구 기획 세분화로 구성된 깨사 기획단은 이날 △사회정점문제에 대한 자문단 구성 △각 신행단체의 사회적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자료집 발간 △주제별 워크숍 및 의제(議題)구성 기초사업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경전자료모집 발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프로그램 정보제공 등 9개항의 사업을 논의했다.

中信會 북돋기불교위 등창

조계종중앙신도회 송재건회장은 3일 저녁 자택으로 총무원 간부스님들을 초청, 북한동포돕기와 교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월주 총무원장과 총무부장 혜장스님 등 총무원 간부스님 10여명과 중앙신도회에서는 사무부총장 백영식법사와 공인창 교화부장이 참석했다.

송회장은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위원장 지선)에 동참, 북한동포 돕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승가와 재가가 힘을 합쳐 불교중흥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전통강원 선인가 하라"

전국승가대학연합회(의장 원돈·이하 정승현)는 지난 5월 개원된 강원령의 입법예고기간 만기 하루전인 1일 성명을 내고 전통강원을 종단의 주 기본교육기관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승현은 성명에서 "현 강원령은 전통 강원교육의 장점을 무시한 체제도를 통한 통제만을 내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행종로나 수행방향을 감안한 기본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원의 답변과 대안을 요구했다.

김현안씨 징역10년 구형

서울지검 서부지청 김형순 검사는 3일 열린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 공판에서 피고 김현안씨(前 경리부직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선고공판은 18일.

'갑' 승가교육 지원금

월주스님 2천불 전달

템종왕사 예방받고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2일 캄보디아 왕사인 템종스님의

예방을 받고 승가교육 지원금 2천불을 전달했으며 내년 부처님 오신날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대해 템종스님은 "앞으로 양국간의 불교교류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며 "내년 부처님 오신날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화장 반대않지만 관습때문에..."

수도권 1천1백명 '장묘의식' 조사 "납골당 알고있다" 73.6%

수도권주민들은 심각한 묘지문제의 대안으로 화장에 찬성률이 높은 반면 전통적인 관습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차원의 홍보대책 마련과 함께 불교계의 장의포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서울시민 공청회에서 동국대 김익기교수가 서울·경기지역 1천1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묘지와 화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40.7%가 화장을 찬성했으며 88.9%는 '묘지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남성(38.2%)보다는 여성(44.1%)이 나이가 많을수록 화장 찬성률은 높았다. 납골당에 대해서는 73.6%

가 알고있다고 말했으며 41.1%는 사용을 고려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S경제연구소가 '납골당사업의 수익성은 10~20년이 지나야 될 것'이라는 경제성조사와, 지자체들이 종교 납골시설에도 과세를 부과하고 있어 납골묘지 조성바람이 위축될 우려에 처해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장묘문화 개선의 시급함은 인지하면서도 관습에 의하여 화장을 꺼리고 시설 설비를 반대하는 상황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도활용도를 높이고 불교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장묘제도 개선으로 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납골

당 담포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취, 포교에 직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교·시민·사회단체 1백곳 연대

'북돋기 전국회의' 발족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전국회의'(이하 동포돕기전국회의)를 발족했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 등 1백여개 단체 대표들은 6월30일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포돕기전국회의를 통해 단체간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남

북한 민간차원의 상호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곡물구입과 수송, 전달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민간단체 공동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북한동포돕기운동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핍들을 제거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 환경운동연합 등 4백여명이 6월30일 동아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결기대회를 가졌다. <대우=이윤호 기자>

동아골프장 반대 '군민 한목소리'

산림황폐화 예방등 결의 가두행진

동아골프장(늘발골프장) 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공동의장 황현석의 5인)와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해인총림대책위(위원장 보광스님)·덕곡면 대책위(위원장 도영환) 대구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 소속 4백여명은 6월30일 가야면 버스정류장 앞에서 해인사 인근에 추진중인 동아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결기대회를 갖고 면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골프장이 건설되면 맹목성 농약에 의한 식수원 오염과 산림의 황폐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한뒤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앞서 해인총림대책위 선운스님(해인사 총무국장)은 연대사를 통해 "골프장 건설은 불교성지인 해인사의 청정성과 수도도량으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다"며 골프장 건설을 방관치 않을 것을 천명했다.

한편 각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1개단체는 2일 합천군을 방문 아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결기대회를 갖고 면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강 군수는 "제출한 민원에 합당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골프장 사업계획서가 반려했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아등극단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북한소재 고구려 고분(분지 제129호 13면) 등 북한 문화재 복원기금 마련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극단 안데르센이 8월 15일부터 12월14일까지 통일호 열차가 달는 전국 총95개역에서 아등극 '깨비깨비 도깨비' 공연을 갖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북한 문화재 복원기금용으로 내놓겠다는 것.

한 아등극단의 일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내 문화재 훼손이 식량난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식량난으로 인해 도굴이 자행되고 있으며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이

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자금과 기술부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가 어렵다며 유네스코에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도 정부나 학계, 불교계 차원에서 북한문화재 보존위원회를 구성, 북한문화재 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 현재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하고 오히려 일본학자들이 북한문화재 보존관리가 있다고 판단, 앞장서 자체 모금을 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통합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문화적 교류를 통한

북한문화재 지키자

한국불교사 연구에 어떠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성보보존위원회에 북한당국이 북한소재 문화재의 현황 파악 및 보존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

신심으로 가는 깨침의 길

중국불교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중국불교성지순례

불교TV와 함께 다녀오십시오

민족의 정기 서린 백두산

순례지
심양-연길-백두산-용정-도문-북경-대동-오대산-북경-청도

백두산성지순례 8일 ₩1,150,000

중국불교성지순례 일정안내

- 출발일: 백두산코스 : 7월22일/8월12일
- 구화산·보타산코스 : 9월~2월 매월 1회
- 동참금 : 1,150,000원
- 20명 이상 신청시 출발일 조정 가능

불교TV만이 드리는 모방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

- 획기적인 가격
- 여유있는 순례코스
- 국내 최초 크루즈급 여객선의 최고 서비스
- 중국현지 최대 여행사의 넉넉하고 편리한 일정

예약문의 불교텔레비전 사업부 ☎ (02)3270-3471~3 위동마린투어 ☎ (02)711-0111